

'아웃사이드' 들 자기실현 과정 그려

극단 맥토의 뮤지컬 '플라워' (인생 3막)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학로 김동수 플레이하우스에서 공연된다. 산 속의 작은 마을을 무대로 사회에서 소외된 아웃사이드들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다. 50세 미만 남자인 누구나 받아주는 강원도 양구의 사찰 '천화사'. 이곳에서는 사회에서 상처 받은 비주류들이 모여 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 사찰만의 전통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찰에서 거부당한 사람도 이곳 천화사에서서는 활기를 띠어준다.

한 때 잘 나가던 미아리 나이트클럽 사장 김영춘, 몰락한 전직 사비 교주 배근식, 가난 때문에 기절한 언어장애인 오정수, 어린시절 천재로 매스컴의 극찬을 받았던 신숙, 주지스님을 연모해 보살이 된 박보살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사회의 주변인이면서 동시에 아웃사

뮤지컬 '플라워' 4월 20일까지 공연



이다. 불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이들을 아버지처럼 대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주지스님이다. 천화사에 사는 행자들은 현실 사회와 거의 똑같이 행동한다. 자살시도를 비롯해 음주자무를 즐기는가 하면 스스로

왕따 되기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속세의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싸우고 욕하면서 살아가던 이들도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고 공유하며 간격을 좁혀나가고 마침내는 자기실현의 길로 접어든

다는 것이 이번 작품의 줄거리다. 주지스님은 '돈키호테'와 '햄릿' 등에 출연해 이미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은 최효상씨와 드라마 '토지'와 '연개소문', '대조영' 등 사극에 주로 출연했던 정동규씨가 더블 캐스팅 됐다. 또한 좌충우돌 박 보살 역은 탤런트 노현희씨가 맡아 주목을 끈다. 특히 무용과 출신인 노씨는 이번 작품에서 빼어난 춤과 노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을 맡은 강태식 감독은 "오즘 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웃사이드' 들의 모습을 통해 비록 저마다의 사연들을 간직한 채 사회에서 소외당했지만 그들에게도 역전 만무할권을 날릴 이상과 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말했다. 4만 원. (02)2238-0903.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봄날의 국악여정' 가야금 선율 따라 가볼까

3월 19일 남산국악당서 불자연주자 흥경희씨 공연

남산골 한옥마을에 있는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새 봄 다양한 국악을 들을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서울남산국악당에서는 3-4월 두 달 동안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봄날의 국악여정'이라는 상설 공연이 이어진다.

매주 수요일에는 '황병기 평인의 가야금 산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유파별 가야금 산조 연주자들의 공연이 계속된다.

박현숙, 김혜숙, 홍경희, 김승희, 송화자, 김일문, 이지영, 지애리 등이 가야금 산조를 들려주고 황병기 평인의 해설도 곁들여진다.

이중 3월 19일 공연되는 흥경희 상임이사(대불련 총동문회)의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연주는 주목할만하다. 우조성음이 주를 이룬 이 산조는 에이블비한 느낌을 주는 곡이다. 선율의 차분한 선비적 느낌은 음(중)을 막아내는 수법과 풍류의 기법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장단은 변화무쌍하여 가락이 장단을 넘나드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국악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작곡가 강태홍은 신심 깊은 불자로서 생전에 추구했던 반야의 길을 이 곡을 통해 자신만의 색채로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평소 구도적 절제를 통한 무한자유를 추구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불자 연주자 흥경희씨의 공연은 더욱 기대된다. 1만-2만원. (02)399-1114 김주일 기자



주자들이 창작음악을 연주한다. 김정림, 이종훈, 김주리, 노은아, 김영미, 사주현, 김준희, 김애라 등이 출연한다. 토요일에는 퓨전국악밴드 '대한사람' (3월)과 '그림' (4월)이 '남산에서 놀다'라는 제목으로 공연한다. 1만-2만원. (02)399-1114 김주일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메밀떡



이호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메밀꽃을 '마치 소금을 뿌려 놓은 듯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꽃'으로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메밀은 하얀 꽃이 떨어지고 나면 흑갈색을 띠는 씨앗을 남깁니다. 이것이 메밀입니다.

메밀은 마디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중양아시아 북부가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곡물에 부족한 필수아미노산 다량 함유,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어 알레르기에도 좋아

메밀은 씹어 들어있지 않은 비타민 B1, B2와 철분이 풍부해 씹어 주석인 우리 식단에서는 꼭 필요한 보조식품입니다. 또한 메밀에는 다른 식물에는 거의 없는 루틴(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란 성분이 풍부합니다. 루틴은 비타민P의 작용을 하는데, 이는 모

세혈관의 투과성을 낮추고 취약성을 강화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모세혈관에 문제가 있는 질환인 혈소판 감소성지반병, 모세혈관저항 저하성지반병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메밀은 한방에서 '교맥'이라 부르는데 맛은 달고 성질이 찬 음식에 속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메밀이 비장과 위장의 습기와 열기를 없애주며

소화가 잘되지 않는 효능이 있어 메밀을 먹으면 목은 체기가

내려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나 체질적으로 열과 습한 기운이 많은 사람이 메밀을 먹으면 몸속에 쌓였던 열기와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여름철에 메밀로 만든 국수나 냉면을 먹는 것은 이 때문

메밀떡 재료: 메밀, 찹쌀, 밤, 소금

만드는 법

- ① 메밀은 껍질을 벗겨서 골게 뿜는다.
- ② 찹쌀은 하루 전에 담가 소금으로 밀간을 한 다음 골게 뿜는다.
- ③ 밤은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절구에 빻아 골게 고물을 만들어 놓는다.
- ④ 메밀과 찹쌀은 7:3의 비율로 섞어 찬물로 반죽한다.
- ⑤ 반죽을 밀판에 1cm 두께로 밀어 먹기 좋게 썰어 끓는 물에 데친 후 건져 받고물을 두툼하게 묻혀 낸다.

설법 무료특강

15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설법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설법 개인지도" 연수생 모집 합니다.

- 교육목표 ◇나의 발견 ◇나의 계발 ◇나의 실현
- 교육내용 ◇대인불안 공포증해소, 대담한 성격 배양, 자신감, 열정, 호소력, 화술... 설법실기 ◇인사말, 축사,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 특 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최면(催眠)도 활용합니다.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무료강좌 / 선착순 15명(신청자에 한함)
-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중로구 중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중로 3가역 2번출구>

2008년 중국베이징올림픽기념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 사절단

2004년 유엔 교육과학문화 조직 국제유산 UNESCO "중국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금운법계-묘음비천-구주일통-홍수묘명"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1. 금운법계-불문승경, 자기향연, 천수천안, 신령구사로.....
*미와선이 암흑세력에 맞서서 싸우며 정의는 최종적으로 승리 할 것 이라는 진리를 얘기한다.
2. 묘음비천
귀신을 쫓아낸 후 인간의 산천이 더욱 아름답게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람의 생활이 성결 해짐을 나타냄.
3. 구주일통
팔기의장, 고부열화, 풍요수화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 국가의 강성을 얘기함.
4. 홍수묘명
불광보조, 정의산장, 초원래객, 승속동라등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양관찬란, 만리무운, 음악명래 회경열렬로 되어있는데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무용으로 축복을 올린다.

중국전통 오페라경극

경극은 대략1830년대 청나라 도광(道光) 황제 때에 여러 가지 지방극이 북경에서 융합되어 발전된 것으로 백팔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90년 청나라 건륭(乾隆) 황제의 80세 생일 때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희곡작가들을 북경에 불러 경극 공연을 하게 하였다.

공연시간

▶ A Time = 60분 ▶ B Time = 100분

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초청연혁

▶ 2006 스페인국립무용 초청 ▶ 2007년 네덜란드 국립무용 초청

- 초 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 홈페이지 : www.108.or.kr (자료동영상을 찾으십시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은 2008년 4월 15일 ~ 7월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찰, 단체는 문의를 하시거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11-1714-8851(24시간) 후 원: 불교상조회